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감각추구의 조절효과

유병혁*, 김수민**, 강일모***, 백현기****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감각추구와 대인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win 13.0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계수산출과 상관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조절회귀분석(MMR)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와 감각추구의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와 감각추구는 각각 상호작용을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se of the Internet and Internet addiction of youth in the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control of the pursuit

Byeounghyeouk Yoo*, Sumin Kim**, Ilmo Kang***, Hyeonggi Baek****

Abstract

The youth of this research using the Internet, navigate to the factors and relationships with Internet addiction, and the sense of seeking and wan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o was studied 347 high school students in the Gyeonggi Province. SPSS win 13.0 program to study the reliability coefficient was calculated and analysis of care. Regression analysis, control theory verification (MMR) was conducted. Factor analysis using the Internet when the Internet addiction aff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pursuit of a sense of interaction was confirmed by the positive control the effects. Verification results of this research using the Internet to the fact that Internet addiction Static (+) gave. Pursui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control and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different.

Keywords: Internet utility factor, Internet poisoning, sense pursuit, moderate effect

1. 서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의 부와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오늘날 지

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습능력, 유연한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데 알맞은 도구가 인터넷이다[1].

이처럼 인터넷은 편리성, 대중성, 다원성, 정보성, 익명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생활상의 필요를 위해 긍정적으로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이 '인터넷 중독' 현상이다.

Goldberg(1996)가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작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 제일저자(First Author) : 유병혁
접수일자:2009년05월11일, 심사완료:2009년06월02일
* 숙지고등학교
sky580316@naver.com
** 군산대학교강사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문화산업경영 교수
**** 전주교육대학교 초등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9]. 현재 한국사회의 인터넷 사용자는 만 6세 이상 기준으로 34,4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19세의 청소년은 893만 명으로 98.7%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15]. 청소년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된 계층으로 '인터넷 중독'은 점점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중독의 요인 탐구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고 요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감각추구와 대인관계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미약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인관계와 감각추구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인관계와 감각추구성향을 각각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의 두 변인을 동시에 탐색하여 인터넷 중독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사용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와 대인관계가 조절효과를 미친다는 가설적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성향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규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대인관계와 감각추구는 각각 상호작용을 하여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2.1.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증은 Goldberg에 의해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이라는 의미로 소개되었고[19], Young(1998)은 통제 상실과 사회적 문제야기로 보았고, 그 개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대체적

으로 정신의학적인 입장에서 충동조절장애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집착, 내성 및 금단, 일상생활에의 지장 등이 인터넷 중독의 핵심 준거나 진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23].

인터넷 중독은 단순히 인터넷에 몰입이나 인터넷의 과다사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인터넷사용과 관련해서 강박적인 사용, 집착, 재발, 내성 및 의존성, 생활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라 볼 수 있다[2][14][15].

한편,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도박증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을 보이기 쉬운 일부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지루함, 사회적 지지 결핍 등을 지적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증'이란,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 활동상의 장애를 받는 상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2.1.2 인터넷 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현상 중에서 고등학생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게임중독, 통신 중독, 음란물 중독 등이 있다. 각 중독증의 개념 및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게임중독(Game Addiction)

'게임 중독증'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병적 인터넷 사용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Suler(1996)는 '욕구실현이론'에서 자신이 현실에서 획득하기 위한 욕구가 게임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2) 통신 중독

통신 중독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통신 중독에는 채팅, 머드게임, 정보서핑, 사이버트레이닝, 도박, 쇼핑 등이 있다.

이러한 통신 중독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익명성과 채팅, 심리적 위안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통신 중독의 원인이다.

3) 음란물 중독

인터넷은 '클릭' 한 번만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성(Sex)에 대한 정보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은 청소년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22].

2.2 인터넷 사용요인

2.2.1 인터넷 사용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넷 사용요인은 사용 환경, 사용 시기, 사용목적으로 가정하였다. 이지향(2005)은 인터넷 중독 성향 군에 포함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남자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목적이 다양하며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 및 보상경험이 강하다. 인터넷 사용량과 가상공간의 현실지각수준은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은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도 중독 성향이 높아지지 않았다[11].

이숙진(2007)은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청소년의 96.2%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91.8%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자기 집 95.3%이며, 인터넷 사용시간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동기는 재미가 있어서 51.3%로 가장 높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5.5%,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4%로 나타났다[10].

인터넷 활동은 게임 56.5%, 영화/음악/동영상 즐기기 52.3%채팅/메신저의 사용 46.2%, 정보검색이 40.1%이었다. 게임은 고위험군이 94.4%, 잠재위험군이 34.3%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접속시간은 약 5시간 이상이며, PC방 사용률이 높으나, 시간만으로는 인터넷 사용수준을 규정할 수 없다. 고위험군이 일반군과 잠재위험군보다 나표현 및 성취 영역에서 높은 동기점수를 보였다(20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요인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

정하였다[15].

2.3 조절효과

Barn & Keny(1986)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와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혼동되어 사용된 것을 지적하면서 조절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수준에서 유지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3의 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17].

2.3.1 감각추구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 Tendency)는 Zuckerman이 1960년대 초 처음 개발한 것으로 위험한 활동연구, 내적경험추구욕구, 사회적 이탈추구, 침착성 상실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31]. 국내 연구는 오미경(1998)이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한다. 송인덕(1999)은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과 관계는 사회적 이탈추구와 부분적 상관관계가 있고, 권정혜(2000)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민(2003)은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간의 상관관계에서 스틸과 모험추구는 인터넷 중독과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김정순(2008)은 감각추구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적경험추구, 사회적 이탈추구, 침착성 상실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13].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감각추구를 인터넷 사용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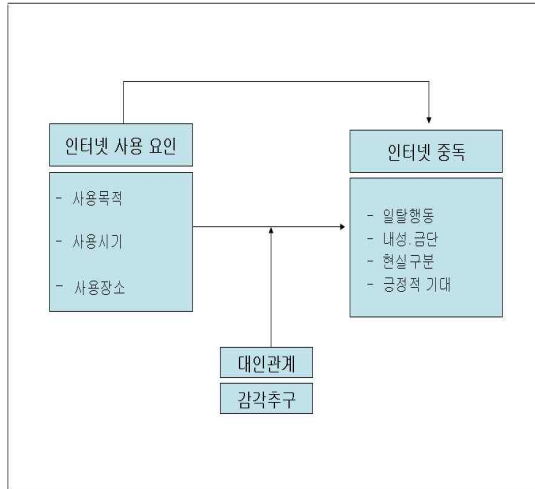
2.3.2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으로 내적 특성과 외적 행동 특성간의 관계이다. 즉,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다. Heider(1964)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격 발달과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은 일부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차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Young, 1996; Kraut, 1998). 송명준과 권정혜(2000)는 인터넷 중독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며, 하지현(2000)은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지며, 김미경(2002)은 친구관계에서 대인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다. Griffiths(2000)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회성이 결핍되고 자신감이 낮은 10대 남성에게 인터넷 중독이 많으며, 컴퓨터를 ‘전자친구’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4][12]. 인터넷이 사회적 관계를 넓혀 주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의 설계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유용한 적응기제임을 밝히고, 대인관계 및 감각추구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절효과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감소를 위

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로부터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대인관계와 감각추구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에 정적(+) 조절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의 감각추구는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에 정적(+) 조절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인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기존연구 및 이론에 대한 고찰 등 문헌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이론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토대로 <표 1>과 같은 측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의 구성은 총 3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의 설문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5 point Likert Scale)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만족을 1로, 만족을 2, 보통을 3으로, 불만족을 4, 매우불만족을 5로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인인 인터넷 사용요인은 이숙진(2007)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인터넷 사용 환경, 사용 시기, 사용목적 등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각추구척도는 Zuckerman, Eysenck 와 Eysenck(1979)가 제작한 자극추구척도 5판을 수정하여 김정순(2008)이 번안한 것을 도구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25].

대인관계의 측정도구는 Schiein과 Guerney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번안한 김정순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4].

인터넷 중독현상은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2002년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인터넷 중독 진단표는 총 20문항으로 구

성된 검사로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것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매우 만족을 1로, 보통을 3으로, 매우불만족을 5로 부여하여 측정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0점에서 40점 미만까지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자로, 40점에서 69점까지는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초기 인터넷 중독자로, 70점 이상은 인터넷 사용으로 생활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했다. 따라서 40점 이상을 중독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4.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3.0 wl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Cronbach's α 계수로 상관분석을 산출하였다.

둘째: 가설검증을 위한 조절변인의 효과검증을 위해 조절효과 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MR)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분석(MMR)은 변인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단순연구에서 변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Baron & Keny, 1986).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검증된 상호작용효과를 추출하여 ΔR^2 를 비교한다. ΔR^2 는 수정된 R^2 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이 인터넷 사용 환경의 Cronbach's α 계수는 .774, 인터넷 사용시간은 .769, 사용목적은 .770, 감각추구는 .773, 대인관계는 .760, 인터넷 중독은 .768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측정항목의 분석결과 모든 문항에 대하여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측정척도

변인 구분	분석 요인	측정항목	선행연구
독립 변인	사용 환경	1. 접속장소, 집, 학교, PC방,	* 2007. 이숙진. * 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6.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 컴퓨터의 위치, 본인방, 거실,	
		3. 수면시간, 4-6, 7-8, 8시간 이상	
		4. 생활지장정도	
		5.. 중독인정	
		6. 상담대상, 부모님, 학교 및 상담,	
	사용 시간	7. 주당 인터넷 접속 시간	
		8. 1일 접속횟수	
		9. 1회 접속시간	
	사용 목적	10. 자신표현	
		11. 레벨업	
		12. 소일거리	
		13. 자기공간	
		14. 소일거리	
		15. 성자극	
조절 변인	감각 추구	16. 위험한 활동욕구	2008. 김정순
		17. 내적경험추구욕구	
		18. 사회적 일탈추구	
	대인 관계	19. 침착성 상실	2008. 안재영
		20. 만족감, 동료와 관계	
		21. 의사소통	
		22. 신뢰감	
		23. 친근감	
		24. 민감성	
종속 변인	인터넷 중독	25. 개방성	* 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의 특성분석연구.
		26. 내성	
		27. 긍정적 기대	
		28. 금단현상	
		29. 가상관계	
		30. 일탈행동	
31. 일상생활 장애			
32. 현실구분			

<표 2> 독립변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결과

측정항목	성분			Cronbach alpha
	사용 환경	사용 시간	사용 목적	
1. 접속장소, 집, 학교	.765			.777
2. 컴퓨터의 위치	.823			.778
3. 수면시간	.598			.780
4. 생활지장정도	.615			.774
5. 중독인정	.824			.778
6. 상담대상	.840			.797
7. 주당 인터넷 접속 시간		.682		.769
8. 1일 접속횟수		.663		.773
9. 1회 접속시간		.795		.770
10. 자신표현			.702	.772
11. 레벨업			.712	.773
12. 소일거리			.784	.770
13. 자기공간			.664	.783
14. 소일거리			.681	.774
15. 성자극			.755	.781
16. 위험한 활동욕구	.814			.781
17. 내적경험추구욕구	.745			.773
18. 사회적 일탈추구	.803			.781
19. 침착성 상실	.608			.773
20. 만족감		.680		.779
21. 의사소통		.831		.760
22. 신뢰감		.724		.761
23. 친근감		.776		.762
24. 민감성		.864		.765
25. 개방성		.840		.766
26. 내성			.987	.768
27. 긍정적 기대			.766	.771
28. 금단현상			.813	.768
29. 가상관계			.829	.769
30. 일탈행동			.735	.783
31. 일상생활 장애			.854	.782
32. 현실구분			.870	.779

5. 연구결과

5.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의 남녀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1차로 2008년 4월21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고등학교 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개 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의 한 학급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문에 응하게 하였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표본을 표집 하였다. 1차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유효한 15부를 선정하였다.

2차는 2008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유효한 설문지 18부를 선정하여 총 32부의 예비 설문지를 가지고 본 조사에 대한 필요한 설문 문항들을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조사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34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3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구성은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347명으로 남학생 182명과 여학생 165명으로 구성되었다.

5.2 연구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신뢰도분석은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3>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p < 0.05$)

연구변인	인터넷 사용 요인	감각 추구	대인 관계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요인	1			
감각추구	.415 **	1		
대인관계	.239 **	.251 **	1	
인터넷 중독	.324 **	.481 **	.357 **	1

일반적으로 Van and Ferry(1979)는 조직수준의 분석수준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지표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0.7을 신뢰도 계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이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부하량은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 요인부하량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5.3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간의 상호 관련성 여부와 관련성 정도를 알기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12개 연구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각 연구 단위 별로 측정항목들을 산술 평균하여 그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절대값이 0.2이하이면 상관관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0.4정도이면 약한 상관관계, 0.6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인터넷 사용요인, 감각추구, 대인관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최하 .239에서 최고 .481까지 값들이 나타남으로써 변인간의 정적상관과 독립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은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보았으며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부하량을 제공하여 합한 값을 말한다.

5.4 조절변인의 효과 검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제3의 조절변인인 감각추구와 대인관계가 상호작용하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조절회귀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인 Y에 대해 X와 Z가 예측변수 역할을 하는 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식2) (식3)의 결정계수 R²의 차이를 비교한다. 즉 ΔR²의 유의성 여부에 의해서 조절효과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R²의 차이에 기초한 F통계량을

도 제시되는데 이 수치의 유의성은 X×Z 상호작용의 존재인 조절효과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한인수, 2003 재인용)

$$Y = a + b1X + e \text{ (식1)}$$

$$Y = a + b1X + b2Z + e \text{ (식2)}$$

$$Y = a + b1X + b2Z + b3X \times Z + e \text{ (식3)}$$

(Y 인터넷 중독, X 인터넷 사용변인, Z 감각추구·대인관계, X×Z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 a 회귀상수, b1, b2, b3 회귀계수, e(잔차))

<표 4>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에서 감각추구의 조절효과(n=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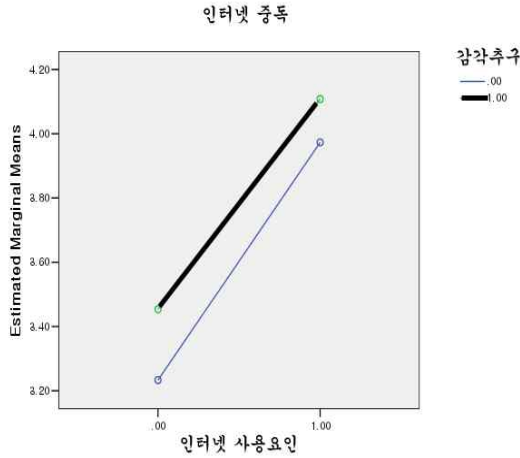
(p<0.05)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					
	β	t	R ²	ΔR ²	F	p
1. 인터넷 사용환경	.415	7.033	.172	.169	49.458	0.000
2. 인터넷 사용환경 감각추구	.379 .144	6.274 2.388	.192	.185	28.068	0.000
3. 인터넷 사용환경 감각추구 인터넷 사용환경× 감각추구	.379 .147 .015	6.261 2.393 .258	.192	.181	18.660	0.000

5.5 감각추구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조절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과 같다. 인터넷 사용요인× 감각추구로 인한 β값은 상호작용변인이 투입된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한 값이며, 이를 중심으로 결과 해석을 하였다. 고등학생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 환경은 인터넷 중독과의 감각추구 조절효과는(β=.415, p<.001)이며, 인터넷 중독을 의미 있게 설명한다. 감각추구(β=.144, p<.001)는 유의미한 차이(p<.001)를 나타내고 있어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그림 3)에서 보여주

듯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요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감각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14%에서 따라서 인터넷 사용요인은 감각추구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 유효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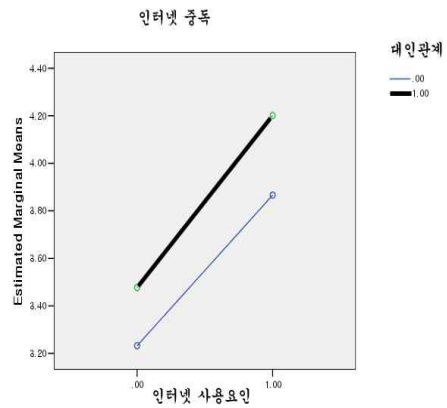
(그림 2) 감각추구의 조절효과

5.6 대인관계 변인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변인의 조절효과 검증은 위하여 조절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터넷 사용요인× 대인관계로 인한 β값은 상호작용변인이 투입된 마지막 모델에서 산출한 값이며, 이를 중심으로 결과 해석을 하였다. 고등학생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 환경은 인터넷 중독과의 대인관계 조절효과는(β=.415, p<.001)이며, 인터넷 중독을 의미 있게 설명한다. 대인관계(β=.162, p<.001)는 유의미한 차이(p<.001)를 나타내고 있어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를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대인관계가 높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요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인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에서 대인관계의 조절효과(n=347) (p<0.05)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					
	β	t	R ₂	Δ R ₂	F	p
1. 인터넷 사용환경	.415	7.033	.172	.169	49.458	0.000
2. 인터넷 사용환경 대인관계	.337 .162	5.060 2.431	.192	.185	28.193	0.000
3. 인터넷 사용환경 대인관계 인터넷 사용 환경×대인관계	.360 .172 .070	5.149 2.560 1.081	.196	.186	19.198	0.000



(그림 3) 대인관계의 조절효과

5.7 가설검증의 결과

가설검증 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분석에 대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력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와 대인관계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가설 2와 가설 3도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인 영향력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와 대인관계가 인터넷 사용요인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력을 미칠 때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가설내용	분석 방법	분석 결과
가설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 회귀 분석	채택
가설2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에 정적(+) 조절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 회귀 분석	채택
가설3	청소년의 감각추구는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에 정적(+) 조절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 회귀 분석	채택

6. 결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높은 대인관계요인과 감각추구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감소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토대로 개념적 기틀과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에서 측정변인인 인터넷 사용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관련변인의 구성요소인 인터넷 사용 환경, 사용 시기, 사용목적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요인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설명적 차원의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감각추구는 인터넷 중독의 인터넷 사용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각추구는 인터넷 사용환경, 사용시기, 사용목적에 직접적으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인터넷 중독의 대인관계는 인터넷 중독의 사용 환경, 사용 시기, 사용 목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사

용관련요인은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감소를 위한 이론적 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중단적인 감각추구와 대인관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사용요인과 개인관련요인, 가정관련요인, 학교관련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조절효과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능력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이 도구를 활용한 종단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1] 강숙희(2002). 인터넷과 수업. 제1판 서울: 교육과학사.
- [2] 김미영(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3] 김정순(2008). 청소년ADHD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감각추구성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4] 남궁일(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가정·학교적응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6] 배숙진(1999).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7] 백현기(2008). 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현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6권 제3호, pp. 93-107.
- [8] 부성인(2006). 인터넷 게임 이용 수준 및 게임 이용 동기, 감각추구 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11] 안재영(2008).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성향간의 관계: 대인관계기술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9] 여정숙 · 이수연(2007). 인터넷 중독 개입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7-48.

[10] 이숙진(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11] 이지향(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2] 우정연(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문제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3] 장우민(2003).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학교적응 및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인터넷 중독상담 성과 측정 연구. 연구보고. pp. 1-90.

[15]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부(2007). 2007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16] Allport, G (1935). Pattern &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7]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18] Brenner, V.(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tion,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2.

[19] Goldberg(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20] Griffith, M. (1997).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PA annual convention, Chicago.

[21] Kopp, C. B. (1982). The adolescents of self-regulation 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22]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23] Young, J. H. (1998). Internet addiction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impulsiveness, sensation seeking tendency, and social relationship (social discomfor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24]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25]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유병혁

1982년 :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
 1996년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대학원 (석사)
 2008년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1982년~2003년: 중학교 교사
 2004년~현 재 : 숙지고등학교 교사
 관심분야 : 인터넷 중독, 이러닝, 지형학



김수민

2000년 :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석사)
 2005년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현 재 : 군산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USN



강일모

1983년 :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마케팅전공
 1989년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마케팅전공
 현 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관심분야 : 마케팅 문화 경영,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백현기

2002년 : 우석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2006년 : 전북대학교 (교육학박사)
 현 재: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육공학과 논문지도교수
 관심분야 :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USN, u-class, u-city